

## 20대 초반 남성군인과 민간인의 화장품과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과 실천행위

장 서 원 · 한 경 희<sup>†</sup>

서원대학교 산업대학원 향장미용학 전공 · 서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Interests and Behaviors of Male Soldiers and Civilians in Their Early Twenties on Cosmetics and Aesthetics

Jang, Seo Won · Han, Kyung Hee<sup>†</sup>

Major in Beauty Cosmetics, College of Industry, Seowon University  
Dept. of Food and Nutrition, Seowon University, Cheongju, Korea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soldiers' and civilians' interest in and behaviors toward cosmetics and skin beauty. Responses to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ere collected from 150 soldiers and 156 civilians residing in Chung-chung Province, Korea. The mean age of the respondents was  $21.9 \pm 1.8$ . More than 90% used skin toner and lotion products, and more than 50% used sunblocks and foam cleansers. Soldiers were more likely to use essence ( $p < .001$ ) and after-shave ( $p < .01$ ) products than civilians. In addition, soldiers were more likely to use carrier cosmetics than their counterparts ( $p < .001 \sim p < .05$ ). Soldiers were more likely to be concerned about their skin ( $p < .01$ ) and unsatisfactory environments for skin care ( $p < .001$ ), more likely to engage in skin care behaviors ( $p < .01$ ), and less likely to have skin knowledge than civilians ( $p < .001$ ).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kin knowledge and skin care behaviors ( $p < .01$ ). The level of interest in appearance was correlated with that in skin ( $p < .001$ ). The number of skin related concern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unsatisfactory environments for skin care ( $p < .001$ ). Concerns over appearance ( $p < .001$ ), skin ( $p < .001$ ), and unsatisfactory environments for skin care ( $p < .05$ )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kin care behaviors. The results suggest the necessity of providing a diverse and differentiated range of cosmetics to meet the needs of soldiers and men, particularly the former,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their environments.

Key words: Soldier, Skin Beauty, Skin Care Practice Behavior

접수일: 2014년 6월 10일 심사일: 2014년 6월 17일 게재확정일: 2014년 6월 20일

<sup>†</sup>**Corresponding Author:** Han, Kyung Hee Tel: 82-43-299-8740 Fax: 82-43-299-8740

e-mail: [khhan@seowon.ac.kr](mailto:khhan@seowon.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서론

세계 미용시장이 나라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존의 여성용 화장품 시장도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특히 최근 남성용 화장품 시장의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급상승하는 추세다(Kim 2010). 남녀를 불문하고 미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외모가 사회적인 경쟁력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외모와 피부 가꾸기에 노력을 기울이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다(Lee 2003; Kim 2005). 남성 화장품이 아직은 스킨, 로션과 같은 기초적 제품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점차 남성들도 피부에 대한 고민이 여성만큼이나 세분화되고 있어 사용하는 종류도 그만큼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소비주체로 떠오른 남성들을 위해 업계도 다양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상태는 균형된 식사, 적절한 운동, 피부 청결유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음주, 흡연, 내외적 스트레스, 자외선 등 여러 요인들이 피부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남성피부는 여성에 비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으로 피지 분비량이 많아 일반적으로 지성피부가 많고 대체로 모공이 크며 피부가 단단해 두꺼워 보인다(Kim 2006; Choi 2010). 또한 수분함유량도 상대적으로 적고 계속되는 면도로 인해 피부의 수분 손실로 각질이 쉽게 쌓여 피부가 거친 경우가 많다. 피부상태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8~24세 남자들의 경우 피부의 기능은 상당히 활발하여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신진대사가 불안정한 상태이며 피지 분비량이 왕성하여 여드름 등 피부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Kim 2005). 20대 초반은 감수성이 예민하여 외부의 자극이나 환경조건에 영향을 받기 쉬운 연령층이다. 그러므로 외모에 대한 젊은이들의 생각이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매스 미디어에 의해서 부풀려져 왜곡되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들은 피부 관리에 관심은 있으나 시간적 제약, 혹은 금전적 제약으로 인해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6). 20대 초반 남성을 중심으로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확산되는 것과 같이 군인도 미용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군대에서의 생활환경이 피부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2007)의 연구에서는 입대 후에 응답자의 73.6%가 피부가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고 휴가시나 제대 후를 생각하여 피부상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으며 입대전보다 입대 후에 피부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화장품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야외 활동으로 인한 과다한 자외선 노출, 산악훈련, 고된 훈련과 야간근무로 인한 수면 부족, 자유의 제한, 통제와 구속, 개인공간의 부재로 인한 스트레스가 요인으로 지적되었다(Kim 2007). 또한 입대 후 피부상태의 변화는 여드름과 피부색, 거칠음이 입대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톨릭 의대 피부과 박영민 교수팀 조사(Kukmin Ilbo 2012)에 의하면 병사 1,321명중 798명에게서 1인 1개 이상의 피부질환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병사 35.7%에게서 발견된 여드름뿐 아니라, 발 무좀, 아토피피부염, 사마귀, 모낭염, 티눈, 완선 등이 군인들 사이에서 빈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의료진은 병사들이 부대 내에서 생활공간과 목욕시설을 공유하면서 유병률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피부 관리에 대한 지식이 여자들보다 부족하고(Park 2009), 관심은 있으나 아직까지는 각종 미용 제품들을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관련업체에서는 성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소비자를 향해 기능성과 고급화를 앞세우며 무차별한 광고와 판촉 활동을 하고 있어 제품 선택에 더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남성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피부상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식뿐 아니라 피부 관리를 위해 적절한 실천행위 또한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남성들의 화장품 사용실태와 요구에 대한 연구(Kim 2010), 피부지식 및 자가 피부관리와 실천(Kim 2005; Choi 2011), 그리고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Park 2009)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Kim(2007)의 연구가 보고 되었으나 군인과 일반남성의 피부미용 관련 요인과 지식 및 실천행위를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0대 초반 남성들의 화장품관련 특성, 외모와 피부에 대한 관심정도, 피부에 관한 지식, 피부관리 실천행위, 피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불만 정도를 조

사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군인과 일반인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20대 남성의 뷰티산업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자료수집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지역의 군인(육군) 180명과 20대 초반 일반남성 180명 총 360명을 대상으로 2013년 4월 23일부터 5월 21일 4주간 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 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360부를 배부 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지 54부를 제외한 30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설문지 내용 중 피부 유형(건성, 중성, 지성)분류는 화장품회사나 선행 연구 자료(Kim 2006)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항을 선택 조합하여 12문항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건성, 중성, 지성피부로 구분하였다. 화장품 관련요인은 선행연구(Kim 2007; Kim 2010)를 참고하여 화장품 사용시기, 메이크업에 대한 의견,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유형과 종류, 휴대하고 다니는 화장품 종류를 조사하였다. 화장품의 종류와 피부에 대한 고민은 중복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모관심도, 피부관심도, 환경불만요인 문항은 조사자가 본 연구목적에 맞게 개발하였다. 외모에 관한 관심을 알아보기 위한 5개 문항은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수시로 살펴보려 한다',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을 확인하려한다', '외모에 대한 최신 트렌드에 관심 있다', '외모관리를 위해 뷰티샵을 다녀보고 싶다',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다'가 포함되었다. 피부에 대한 관심 5문항은 '자외선이 강한 날 신경이 쓰인다', '피부질환이 생기면 신경이 쓰인다', '화장품 구입 시 유통기한을 신경 쓴다', '피부에 해로운 음식을 먹을 때 신경 쓰인다', '피부건강 정보를 접하면 따라해 보고 싶다'였다. 피부건강 관리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선행연구

(Myong 2000; Kim 2006; Lee 2004; Park 2009; Choi 2010)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 후 2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피부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불만요인 5문항은 '자외선을 피하기 어려울 때가있다', '화장품 사용이 어려울 때가있다', '세안하기 힘들 때가있다', '피부관리를 원할 때 피부관리를 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피부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은 외모관심도의 경우 최저 0.832에서 최고 0.863, 피부관심 최저 0.753에서 최고 0.818, 환경불만요인 최저 0.820에서 최고 0.847로 높게 나타나 단일차원성이 검증 되었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외모관심 0.87, 피부관심도는 0.82, 환경불만요인은 0.86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피부관리 실천행위는 Kim(2012a)과 Lee(2004)의 연구를 참고해서 총 20개 항목을 만들었고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기본생활습관, 기본피부관리, 보통피부관리, 전문피부관리로 각각 명명하였다. 이들 총 항목에 대한 요인적재량은 최저 0.875에서 최고 0.888로 높게 나타났다. 4개 요인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0.60-0.74로 신뢰도가 확보되어 분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생활습관 5개 항목에는 '피부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한다', '세안 등 개인위생에 철저히 한다', '외출 후 돌아오면 세안을 한다', '피부관리를 위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 한다', '피부 건강을 위해 술 또는 담배를 피한다', '기본피부관리는 자극적인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사용한다', '세안 후 반드시 화장품을 사용한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품을 바른다', '면도 시 셰이빙(폼, 젤, 크림)제품을 사용한다'로 5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보통피부관리는 '바디용 제품을 사용한다', '마사지나 팩 같은 피부관리를 하고 있다', '간단한 메이크업 제품을 사용한다',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한다', '피부건강에 대한 책이나 잡지를 보고 따라 해본다'로 5개 항목이었다. '전문피부관리는 계절에 따라 피부관리 방법이 다르다', '화장품 구입 시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다', '정기적으로(휴가 나올 때) 피부관리실을 방문하여 관리를 받는다',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는다', '좋은 피부관리법이 나오면 피부관리 방법에 대해 배운다'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3. 분석방법

외모관심도, 피부관심도, 환경불만요인, 피부관리 실천행위는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한 5점 Likert 척도로, 피부지식은 20개 문항에 대해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 처리한 후 정답수로 산정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측정된 변수들의 신뢰성은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외모관심도, 피부관심도, 환경

불만 요인은 단일차원성 검증을 위해 주성분 분석과 직각회전법인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다. 피부관리 실천행위에 대한 요인분석은 총 20개 문항을 주성분 분석과 직각회전법인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도출하였다. 명목 척도는 분산분석으로, 군인과 일반남성의 피부고민 수 외모 및 피부관심도, 피부관리 실천행위, 피부관리 지식의 차이 분석은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피부관련 요인 및 실천행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Table 1. Age- and cosmetic-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ubjects	Soldiers	150(49.0)
	Civilians	156(51.0)
Age (years)	21.9±1.8 <sup>1)</sup>	
	<21	73(23.8)
	≥21-<23	173(56.5)
Skin type	≥23	60(19.7)
	Dry	58(19.0)
	Neutral	70(22.9)
First use of cosmetics	Oily	178(58.1)
	Before middle school	72(23.5)
	During high school	124(40.5)
	After 20	74(24.2)
Cosmetic brand	No-use	36(11.8)
	Local brand	159(52.0)
	Imported brand	49(16.0)
	Use of both local and imported brands	61(19.9)
Types of cosmetics	Others(none)	37(12.1)
	Cosmetics for men	159(52.0)
	Cosmetics for women	19( 6.2)
	Use of cosmetics for both men and women	84(27.5)
	Cosmetics for babies	11( 3.6)
Attitudes toward cosmetics	Other(none)	33(10.8)
	Seems ahead of the times	61(19.9)
	A desire to try something similar	62(20.3)
	Understandable but feels somewhat awkward	103(33.7)
	Can't understand	35(11.4)
	Others	45(14.7)

1) Mean ± SD.

Table 2. Types of cosmetics used by soldiers and civilians

Categories	Soldiers N=150	Civilians N=156	$\chi^2$
Skin toner	138(92.0) <sup>1)</sup>	141(90.4)	0.25
Lotion	141(94.0)	141(90.4)	1.38
Essence	58(38.7)	21(13.5)	25.37 <sup>***2)</sup>
Cream	32(21.3)	24(15.4)	1.81
Sunblock	76(50.7)	73(46.8)	0.46
Color lotion	38(25.3)	42(26.9)	0.11
After shave	23(15.3)	10(6.4)	6.33 <sup>**</sup>
Shaving form cream	44(29.3)	42(26.9)	0.22
Foam cleanser	76(50.7)	91(58.3)	1.81
Mask & pack	40(26.7)	41(26.3)	0.01

$p=0.33$

1) N(%)

2) \*\*  $p<0.01$ , \*\*\*  $p<0.001$ 

### III. 결과 및 고찰

#### 1. 연령 및 화장품관련 특성

조사 대상자의 연령 및 화장품 사용에 관한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대상자는 군인 150명(49.0%), 일반남성 156명(51.0%)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연령 분포는 '21세 이하'가 73명(23.8%), '21세 이상 23세 이하'가 173명(56.5%)으로 가장 많은 연령대였고, '23세 이상'이 60명(19.7%)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9세였다. 피부유형은 건성 58명(19.0%), 중성 70명(22.9%), 지성 178명(58.1%)으로 조사되었는데, 피부측정표를 사용하여 피부상태를 진단한 연구(Kim 2006)에서 지성피부가 56.5%였다는 것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화장품 처음 사용 시기는 '고등학교 이전부터' 72명(23.5%), '고등학교 때부터' 124명(40.5%), '20세 이후' 74명(24.2%), '기타(미사용)' 36명(11.8%)으로 나타나 외모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은 남성들이 처음 화장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88.2% 남성들이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들도 화장품 소비의 주체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화장품 브랜드 사용에 대한 질문에 '국내브랜드' 159명(52.0%), '수입브랜드' 49명(16.0%)이고, '국내·

수입 브랜드 혼합사용' 61명(19.9%), '기타(미사용)' 37명(12.1%)으로 나타나 국내브랜드를 사용하는 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Kim(2012b)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이는 국내화장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 상승과 더불어 최근 백화점, 마트, 로드샵, 방문판매 등 다양한 판매채널과 밀착판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기능을 첨가한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화장품 유형은 '남성용 화장품'은 159명(52.0%), '여성용 화장품'은 19명(6.2%), '남성, 여성용 화장품 둘 다 사용'은 84명(27.5%), '베 이비 화장품'은 11명(3.6%), '기타(미사용)'은 33명(10.8%)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수분량이 적고, 유분이 많으며, 민감해지기 쉬운 남성 피부 타입에 적합하게 출시되어 나오는 남성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메이크업에 대한 의견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어색하다'가 103명(3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가 62명(20.3%), '앞서 가는 멋진 사람이다'가 61명(19.9%), '기타' 45명(14.7%), '이해할 수 없다'가 35명(11.4%)순으로 나타났다. Lee(2012)의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남성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메이크업에 대한 스킬과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남성화장의 부담요소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이 아

Table 3. Types of cosmetics carried by soldiers and civilians

Types of carrier cosmetics		Soldiers N=150	Civilians N=156	$\chi^2$
Skin toner & lotion	Yes	51(34.0) <sup>1)</sup>	27(17.3)	11.22 <sup>****2)</sup>
	No	99(66.0)	129(82.7)	
Color lotion	Yes	28(18.7)	12( 9.0)	6.07 <sup>**</sup>
	No	122(81.3)	144(91.0)	
Sunblocks	Yes	68(45.3)	24(15.4)	32.62 <sup>***</sup>
	No	82(54.7)	132(84.6)	
Lip balm	Yes	40(26.7)	30(19.2)	2.40
	No	110(73.4)	126(80.8)	
Oil paper	Yes	19(12.7)	10( 6.4)	3.49 <sup>*</sup>
	No	131(87.3)	146(93.6)	
Hair wax	Yes	29(19.3)	20(12.8)	2.41
	No	121(80.7)	136(87.2)	

1) N(%).

1) \* p<.05, \*\* p<.01, \*\*\* p<.001

직 못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므로 다양한 이벤트나 샘플 등을 이용해 직접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면 어색함과 거부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는 군인과 일반남성이 사용하는 화장품의 종류를 비교한 결과다. 조사대상자들의 90% 이상이 기초화장품인 스킨과 로션을 사용하고 있었고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군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에센스(p<.001)와 에프터 웨이브 제품(p<.01) 사용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군인들에서 활성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흡수되어 세포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는 에센스와 민감해진 피부를 안정시켜 주며 각종 트러블을 줄여주는 에프터 웨이브의 사용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일반남성에 비해 피부 보호를 위해 기초화장품인 스킨, 로션 외에 기능성 제품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Kim(2007)의 연구에서도 남성은 입대 후 더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밖에 크림, 자외선 차단제, 셰이빙 폼 크림 제품에서의 사용빈도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군인들의 화장품 사용이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집단간 휴대하고 다니는 화장품 종류의 차이를 분

석해 보았다(Table 3). 군인이 일반남성보다 스킨·로션(p<.001), 컬러로션(p<.01), 자외선 차단제(p<.001), 기름종이(p<.05)를 유의하게 더 많이 휴대하고 다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im(200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군인들은 휴가나 제대 후 사회에 나왔을 때를 생각하며 피부상태에 대해 고민한다는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보면 군인들은 열악한 군대 환경, 불규칙한 숙면, 많은 시간 야외활동과 훈련으로 과다한 자외선에 노출됨으로 인해 심해진 피부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 더 많은 화장품을 휴대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2. 피부미용 관련요인

얼굴 피부고민에 대한 문항은 11가지 선다형 문항으로 중복가능하게 측정한 결과 군인 평균 3.47개, 일반남성 평균 2.28개로 조사되었고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Table 4). 도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군인들이 일반인에 비해 피부색, 주름, 탄력, 각질, 잡티, 건조, 넓은 모공, 과도한 피지로 고민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p<.05). Kim(2007)의 연구에서 군인들은 군 입대 후 피부에 대한 고민이 증가했다는 결과와 같이 군인들은 일반남성에 비해 좋지 못한 환경에 의해 피부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 A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skin care and behaviors of soldiers and civilians

Factors	Soldiers N=150	Civilians N=156	t
Number of skin- related concerns	3.47± 1.83 <sup>1)</sup>	2.28± 1.27	6.62 <sup>***2)</sup>
Concerns over appearance	17.63± 4.32	17.39± 3.90	.50
Concerns over skin	16.20± 4.21	16.52± 4.21	.72
Knowledge of skin	11.48± 2.58	13.70± 2.45	-7.73 <sup>***</sup>
Unsatisfactory environments for skin care	17.42± 4.52	13.79± 3.56	7.82 <sup>***</sup>
Skin care behaviors	61.75±11.75	57.96±11.98	2.79 <sup>**</sup>

1) Mean ± SD

1) \*\* p&lt;.01, \*\*\* p&lt;.001

외모에 대한 관심은 25점 만점에 군인 평균점수 17.63점 일반남성 17.39점, 피부관심도는 각각 16.20점, 16.52점으로 외모 및 피부관심도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보통(15점) 이상의 관심도를 보였다(Table 4). Yim(2012)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남성들 또한 미용관리에 비교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남성들에 대한 미적 기준에 대한 시대 변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되며, 남성용품 시장도 남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두 집단간 피부지식점수 차이는 20점 만점에 일반남성이 평균 13.70점으로 11.48점의 군인보다 유의하게(p<.001) 더 높았다. 이는 군인들에 비해 일반인들이 다양한 매체와 화장품 업계의 관촉활동을 접하는 기회가 많았던 것도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획득한 지식점수대는 최소 5점에서 최대 19점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점수는 12.61점으로 약 13개 문항에 대해서 정답을 맞혀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남자대학생의 피부건강관리 지식을 알아본 연구(Kim 2013)에서 25점 만점에 평균 16.93점으로 조사되어 이와 비교할 때는 약간 낮은 점수대였다. 선행연구(Choi 2011)에서 피부 지식도는 연령, 결혼여부, 학력, 흡연, 음주,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30대보다 20대(p<.05), 기혼에 비해 미혼,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피부 지식도가 높게 나타났고, 서울지역이 경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부 지식도가 높은 것으

로 조사되어 여러 변수들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불만도는 25점 만점에 군인 평균 17.42점 일반남성 13.79점으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단체생활로 일반남성에 비해 생활환경이 자유롭지 못한 군인이 피부관리를 위한 환경조건에 불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피부관리 실천행위는 100점 만점에 군인이 평균 61.75점으로 일반인 57.96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1). 이 결과는 Kim(2006)이 20대에서 50대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피부건강관리 행위실천 점수가 100점 만점에 평균 53.46이라고 보고한 것과 비교해서는 높았다. 그러나 이는 2006년 조사된 논문으로 현재와 비교해보았을 때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로 남성들이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피부 실천행위 또한 높아졌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군인들의 피부관리 실천행위가 높았다는 것은 환경불만도가 군인에서 더 높았다는 결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3. 문항별 피부지식

Table 5에는 대상자들의 피부지식 세부내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문항별에 따른 정답률을 제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피부관리 지식은 정답 문항인 ‘흡연, 음주는 피부표면의 수분 양을 감소시켜 피부노화를 초래 한다’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 257명(84.0%)을 보였다. 다음으로 ‘계절에 따라 피부에 변화가 생긴다’는 242명(79.1%)의 정답률을 보였

**Table 5.** Percentages of correct answers in the test of skin care knowledge

Questions	Number of correct answers(%)
1. Normal skin is a state of weak acid with a p.H between 4.5 and 6. (T)	184 (60.1)
2. A mud pack is good for all skin types. (F)	146 (47.7)
3. Smoking and drinking induce skin aging by reducing moisture on the skin surface (T)	257 (84.0)
4. Acne is communicable. (F)	120 (39.2)
5. The frequent use of saunas causes skin sagging. (T)	173 (56.5)
6. People with acne can use cosmetics. (T)	181 (59.2)
7. If the skin is overexposed to the ultra-violet ray the process of skin aging accelerates. (T)	240 (78.4)
8. For dry skin, a toner with a small amount of alcohol should be used. (T)	201 (65.7)
9. Eliminating small dead skin cells weakens the skin surface and irritates the skin. (T)	215 (70.3)
10. Lotions to block the ultra-violet ray need not be applied at home or office. (F)	139 (45.0)
11. The skin around the eyes is thicker than that in other areas. (F)	135 (44.1)
12. The use of Shaving cream during shaving protects the skin and makes it more flexible. (T)	234 (76.5)
13. Food items high in iodine, such as seaweed and laver, increase the secretion of sebum. (T)	145 (47.4)
14. For skin with acne, thorough washing is important, particularly skin cleansing before sleeping (T)	224 (73.2)
15. Frequent washing with soap makes the skin healthier. (F)	115 (37.6)
16. The thinner the skin the more sensitive it is. (T)	215 (70.3)
17. Skin change occurs seasons. (T)	242 (79.1)
18. Skin becomes dry as one ages. (T)	234 (76.5)
19. In the case of atopic skin, the intake of certain foods items should be limited. (F)	231 (75.5)
20. SPF and PA are both indices of ultra-violet blockage . (T)	142 (46.4)

(T): Correct; (F): False.



Table 6. A comparison of items for unsatisfactory environments for skin care between soldiers and civilians

	Items	Soldiers N=150	Civilians N=156	t
1	Sometimes it is difficult the ultra-violet ray.	3.66±1.03 <sup>1)</sup>	3.04±0.98	5.40 <sup>***2)</sup>
2	Sometimes it is difficult to use cosmetics.	3.56±1.00	2.78±0.97	6.90 <sup>***</sup>
3	Sometimes it is difficult to wash one's face.	3.45±1.13	2.49±0.94	8.04 <sup>***</sup>
4	Sometimes it is difficult to have appropriate skin care.	3.41±1.13	2.70±0.97	5.73 <sup>***</sup>
5	It is difficult to obtain information on skin care.	3.35±1.24	2.76±1.03	4.49 <sup>***</sup>

1) Mean± SD.

2) \*\*\* p&lt;.001

으며, ‘자외선에 피부가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부 노화 현상이 촉진 된다’가 240명(78.4%)의 정답률을 보였다.

반면에 오답 문항인 ‘비누 세안은 자주 할수록 피부 건강에 좋다’는 문항에서 115명(37.6%)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세안을 할 때 피지를 걷어내기 위해 강하게 비누 세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강한 세안을 자주 할수록 피부의 방어막을 무너트리려 예민성 피부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여드름(acne)은 전염성이다’는 문항에서 120명(39.2%)의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여드름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고 피부에 정상적으로 서식을 하며, 모공을 막아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전염성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인 ‘눈 주위의 피부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두께가 두껍다’는 135명(44.1%)의 정답률을 보여 남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초적인 피부관리 지식에 대해서는 높은 정답률을 보였지만, 전문적인 피부관리 지식으로 갈수록 정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자들은 화장품 선택 시 질과 합리적 가격을 중요시 한다고 하였다(Park 2009). 제품에 새로운 성분이 첨가되어 기능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비교적 화장품에 익숙한 여성들도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나오는 제품에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남성들도 피부관리 지식을 넓히고 관심을 가져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소비태도

를 가져야 할 것이다. Kim(2013)의 연구결과에서도 남성들도 피부미용에 대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의 욕구충족과 정확한 지식을 접하고 피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 4. 항목별 환경불만도

Table 6은 군인과 일반남성이 피부관리를 하는데 어떤 환경요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피부 환경불만도 5개의 문항별 응답률을 조사한 결과다. 모든 문항에서 군인들의 불만도가 일반인에 비해 유의적(p<.001)으로 높았다. 조사대상자들 모두 자외선 노출에 대한 불만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자외선의 유해성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강조하고 있어 남성들도 자외선이 피부 홍반, 피부암, 노화 등 피부에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자외선 문제에 대해 군인은 5점 만점에 평균 3.66으로 높은 불만도를 표현하였고, 이로 인해 자외선차단제의 사용도 일반인에 비해 많았음을 볼 수 있었다(Table 3). 군인과 일반남성의 불만도 순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군인들은 화장품 사용, 세안, 원하는 만큼의 피부관리 기회가 원활하지 못하고 피부관리를 위한 정보를 얻는 것에도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군인들이 피부관리를 하는데 있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하기 힘든 자연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은 자칫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군 생활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외모에 민감히 반응하는 신세대 군인들의 이와 같은 욕구를 반영한 대안이 군 내에서도 고려된다면 그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업계에서도 군인들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는데 환경여건과 개인별 피부상태에 따라 세분화 전문화된 제품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5. 피부미용 관련요인 간 상관관계

피부미용 관련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Table 7) 피부에 대한 고민수와 환경불만 요인은 강한 정(+)의 상관관계(p<.001)를 보여 열악한 환경여건이 피부고민에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모와 피부에 대한 관심도의 경우,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피부에 대한 관심도도 유의하게 높게 조사되었다(p<.001).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면 피부에 대한 지식정도도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53). 피부에 대한 관심도와 피부지식은 상관성이 없었다. 외모와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피부관리를 실천하려는 행위와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p<.001). 그러나 피부지식은 피부관리 실천행위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선행연구(Choi 2010)에서 피부 지식도가 높을수록 자가 피부 관리 실천행위 정도도 높았다는 보고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한편, Kim(2006)의 연구에서는 피부건강여부, 외모관심여부와 피부지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Kim(2006)은 연구시작 전에는 남성들이 피부에 관한 관심도가 높고 이에 따라 피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자신의 피부관리 행동도가 높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으나 연구결과 남성들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대한 관심도나 실천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자는 성인 남성의 경우 대부분 사회활동을 하는 관계로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적극적인 관리보다는 소극적인 관리형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문적인 피부관리를 한다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쓰는데 있어 매우 무관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석하였다. 남성용 피부관리 제품이 점차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어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선택을 위해 정확한 지식습득이 요구되고 이는 적극적인 피부관리 실천행위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 피부미용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에 대한 불만도가 높을수록 피부관리를 실천하려는 행위도 높게 나타났는데(p<.05), 이는 대상자들이 불만족스러운 환경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피부손상에 대비해 피부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6. 실천행위 요인에 따른 피부미용 관련요인 피부미용 관심 요인과 실천행위 4개 요인의 상관관계 분석은 Table 8과 같다. 외모관심점수는 피부관

Table 7. Correlations between factors related to skin beauty

Variables	Number of skin-related concerns	Concerns over appearance	Concerns over-skin	Skin knowledge	Unsatisfactory environments for skin care
Number of skin-related concerns	-	-	-	-	-
Concerns over appearance	.073	-	-	-	-
Concerns over skin	-.047	.618 <sup>***1)</sup>	-	-	-
Skin knowledge	-.023	.111	.025	-	-
Unsatisfactory environments for skin care	.244 <sup>***</sup>	.080	-.014	-.110	-
Skin care behavior	.046	.339 <sup>***</sup>	.397 <sup>***</sup>	-.168 <sup>**</sup>	.129 <sup>*</sup>

1) \* p<.05, \*\* p<.01, \*\*\* p<.001.

Table 8. Correlations between skin care behaviors and factors related to skin beauty

Variables	F1 Management of basic life styles	F2 Basic skin care	F3 Common skin care	F4 Professional skin care
Number of skin related concerns	.005	.018	.086	.032
Concerns over appearance	.330 <sup>****</sup> )	.314 <sup>***</sup>	.246 <sup>***</sup>	.198 <sup>***</sup>
Concerns over skin	.347 <sup>***</sup>	.340 <sup>***</sup>	.288 <sup>***</sup>	.283 <sup>***</sup>
Knowledge of skin	.047	-.005	-.208 <sup>***</sup>	-.305 <sup>***</sup>
Unsatisfactory environments for skin care	.058	-.059	.127 <sup>*</sup>	.092

1) \* p<.05, \*\* p<.01, \*\*\* p<.001.

리 실천행위 요인 중 기본 생활습관(p<.001), 기본피부관리(p<.05), 보통피부관리(p<.001), 전문피부관리(p<.001) 모두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외모에 관심이 많을수록 모든 실천행위 요인을 실천하고자하는 의지가 높았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피부관심 점수도 외모관심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생활습관(p<.001), 기본피부관리(p<.001), 보통피부관리(p<.001), 전문피부관리(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부지식점수는 피부관리 실천행위 요인 중 보통피부관리(p<.001), 전문피부관리(p<.001)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부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것이 피부관리 실천행위로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피부 관리를 위한 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을수록 실천행위 4개 요인 중 보통 피부관리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p<.05). 이는 대상자들이 좋지 못한 환경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마사지나 팩 같은 피부관리’, ‘간단한 메이크업 제품을 사용’, ‘기능성 화장품 사용’, ‘피부건강에 대한 책이나 잡지를 보고 따라하기’ 등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대 초반 군인과 민간인의 화장품관련 특성, 피부미용 관련 특성, 피부관리 실천행위 등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남성들의 피부관리에 도움을 주고 뷰티산업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실사되었다. 충청도에 거주하고 있는 군인

150명과 비슷한 연령의 일반인 남성 15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9세였고 21세에서 23세 사이가 56.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피부유형은 대상자의 51.8%가 지성피부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화장품 사용에 있어서 40.6%가 보통 ‘고등학교’부터 처음 사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브랜드로는 ‘국내 브랜드’가 52%로 가장 많았으며, 종류는 52%가 ‘남성용 화장품’을, 메이크업에 대한 의견은 ‘이해할 수 있으나 어색하다’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둘째, 두 집단 간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종류를 비교해본 결과, 기초화장품인 스킨, 로션은 군인과 일반인 모두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인은 일반인과 비교해볼 때 에센스(p<.001)와 에프터 셰이브(p<.01) 제품 사용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휴대하고 다니는 화장품에서도 스킨·로션(p<.001), 쉐어로션(p<.01), 자외선 차단제(p<.001), 기름종이(p<.05)에서 군인이 더 많이 휴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군인들이 열악한 환경요인으로 인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군인과 일반남성 모두 외모와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군인과 일반남성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군인이 일반남성에 비해 피부고민 수(p<.001), 피부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불만도(p<.001)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로 인해 군인들이 피부관리 실천행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5). 피부지식에 있어서는

일반남성이 군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1$ ). 그러나 두 집단 모두 기초적인 피부관리 지식에 대해서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전문적인 피부관리 지식으로 갈수록 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환경불만요인 조사결과 군인들은 제한된 생활환경으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자외선 노출을 피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화장품 사용, 세안하기, 피부관리 하는 시간을 갖기 어렵고 피부관리를 위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1$ ).

넷째, 피부 미용관련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 피부에 대한 관심도도 높게 나왔다( $p<.001$ ). 외모와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각각  $p<.001$ ), 환경에 대한 불만도가 높을수록( $p<.05$ ) 피부관리 실천행위가 높았다. 그러나 피부지식과 피부관리 실천행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p<.01$ ). 피부에 대한 고민수가 많을수록 환경불만요인 또한 높았다( $p<.001$ ). 외모와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기본생활습관, 기본피부관리, 보통피부관리, 전문적인 피부관리 요인별 실천도도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1$ ). 환경에 대한 불만도가 높을수록 피부관리 실천행위 요인 중 보통피부관리 실천에 좀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05$ ). 피부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전문적인 피부관리 실천 행위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001$ ).

젊은 남성은 사용하고 있는化粧품의 종류도 다양하고 외모와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남성용化粧품의 성장률은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피부관리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었으나 전문적인 부분에는 취약점을 보였다. 남성용 피부관리 제품이 점차 세분화 전문화됨에 따라 남자들이 자신들의 피부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부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군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피부고민수도 많았고 피부미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불만도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고자 기능성化粧품 사용도와 휴대하고 다니는化粧품 수도 더 많았고 피부관리 실천행위도 더 높게 나타났다. 피부손상을 방지하고 외모에 민감한 신세대 군인들을 위해 군 차원에서도 환경불만요인을 어

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대안책 마련이 필요하며 보급하고 있는 피부미용 제품을 좀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남성들이 처한 생활 환경여건과 개인별 피부 특성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References

- Choi JR(2010) Study on adult males' knowledge of skin and individual skin care practice - With a focus on health belief model and self-efficiency -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 Kim BY(2010) Study concerning research requirement about Korea men's cosmetics.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 Kim HJ(2006) The factors affecting to skin health managing attitude and practice behavior of me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Dagu Hanny University
- Kim, JH(2012b) Study on Male customers' awareness and buying behavior of skin and scalp care cosmetics, Master's Thesis, Won kwang University general graduate school.
- Kim JY(2007) Skin care and using cosmetics of military personnel. J. of the Korean Society of Esthetic & Cosmeceutics 2(3) : 8
- Kim, NH(2012a) The effect of the self recognition-level of skin care on skin care practice and self-esteem in males aged 20s,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Kim, YH(2013)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ducation needs for skin health care of male university student, Master's Thesis, Seokyeong University Book of Artist graduate school.
- Kim YR(2005) Men's knowledge and practice on skin health c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 Lee, JH(2003) A study on the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s in university ma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 Lee, JS(2004) A Study on skin-care knowledge and behaviors among male, Master's Thesis, Kon Kuk University industry graduate school.
- Lee, SH(2012) A Study on the men's make-up recognition according men's appearance management consciousness and behavior, Master's Thesis, Dong Duk University obesity beauty graduate school.
- Myong, EJ(2000) A study on knowledge and behavior for skin health care : focusing on women in their 20s and 30s, Master's Thesis, Yon sei University management science graduate school.

Park, HJ(2009) A Study on cosmetics purchasing behavior according to men's skin knowledge and cosmetics purchasing propensity,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culture graduate school.  
Yim, SH(2012) A Study on attitudes toward man's appearance management and cosmetics purchasing

behavior, Master's Thesis,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cyber graduate school.  
Kukmin Ilbo(2012) Six out of ten soldiers were suffering from skin diseases Available from <http://www.kmib.co.kr> [cited 2012 November 5]